

HOME 지역 남해

# 남해 관광문화재단, 인플루언서 초청 소규모 팸투어 진행

정문혁 기자

승인 2021.11.16 08:29



▲ 남해 관광문화재단, 인플루언서 초청 소규모 팸투어 진행

[경남데일리 = 정문혁 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이달 초 유튜버, 인스타그램러,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5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온라인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이벤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팸투어는 'SNS 핫플레이스 남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독일마을 물미해안전망대 설리스카이워크 상주은모래비치 금산 보리암 다랭이마을 이순신순국공원 등을 둘러보는 가운데 홍보용 콘텐츠를 촬영이 이루어졌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했던 인스타그램러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남해를 탐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관광 콘텐츠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하기 좋은 곳

이었다”며 “관광남해를 SNS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관광남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인플루언서 개별 SNS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관광남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문혁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